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based on historical context and cultural infrastructure

오 덕 성* 이 기 복** 유르겐 피치***
Oh, Deog Seong Lee, Ki Bok Jürgen Pietsch

Abstract

The idea that city culture can be employed as a driver for urban development has become part of the new orthodoxy by which cities seek to enhance their competitive position. Such development reflect not only the rise to prominence of the cultural sphere in the city development, but also how the meaning of culture has been refined to include new uses in order to meet the main objectiv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cedure how the cultural infrastructure and historical context can be applied for urban regeneration strategy. Two successful cases (Bilbao, Spain and Yokohama, Japan) were selected for analysis of strategies as a whole, background, main characteristics of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and their effect for urban regeneration have been analyzed in detail.

In conclusion, less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were suggested in terms of resources, planning and linking strategies.

키워드: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역사적 맥락, 자원, 빌바오, 요코하마

Keywords :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historical context, resources, Bilbao, Yokohama

1. 서론

현대 도시에서는 도시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도시들에서 도시공간의 재생과 정비, 친인간적인 환경의 조성, 매력적인 도시경관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문화도시로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기존의 한정된 도시공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천적인 도시재생으로써 자원절약형 도시재생 개념의 등장과 함께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가 가지는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흐름을 따라 세계 여러 도시 들에서는 지역이 가지는 장소성이나 정체성 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세계 일부 도시¹⁾를 중심으로 세계 유수의 대규모 문화시설의 도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²⁾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이 일시적인 개선효과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규모 문화시설의 도입과 같은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가 가진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전략 등 보다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빌바오와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략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기반과 개발전략, 핵심적인 도시재생전략의 계획특성과 관련도시재생전략과의 연관성, 도시재생전략의 직간접적인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의 주요 전략과 계획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도시재생에 문화기반

* 교신저자, 충남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ds_oh@cnu.ac.kr)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독일 함부르크 하부르크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공학박사
본 연구는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학술교류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2006-0852)

1) UAE(아랍 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루브르, 구겐하임 등 박물관의 유치, 해양박물관의 건립 등 대규모 문화시설의 도입을 통한 문화도시개발구상을 세우는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문화시설의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 움직임이 있다.

2) 부산, 광주에서는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단이 설립되었으며, 인천, 대구 등 국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

도시재생전략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

문화환경은 장소를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며, 일반대중이 예술과 공예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하나의 건물이나 공동체의 다른 부분을 통합하고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시각적 환경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미술가 및 제작자, 재료공급자, 운송업자 등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취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도 가진다.

표 1. 문화 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구분	효과
경제적 효과	관광객 증대,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적 효과	도시재생 및 활성화, 장소의 질 개선, 범죄율 하락
삶의 질 효과	예술 접근성 강화, 삶의 질 개선, 사회적 발달
공동체 효과	소속감 부여, 정주성 강화, 공동체 강화, 주민간 유대 강화
이미지 효과	지역이미지 개선

자료) 문화 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2006년 기본과제 정책토론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의 활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중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적용모델 연구(2004)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해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역사적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의 보존, 도심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행사 개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의 계획요소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계획요소 및 지침

전략	계획요소	지침
역사문화환경의 조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각종 문화재와 전통건축물의 적극 보존
		도심부의 지역문화유산이 집중된 곳을 역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지역문화자원목록을 구축
	역사적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 보존	도심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적극 활용
		기존도심이 가지고 있던 가로경관을 보전하여 경관 특성 유지
		스카이라인 파사디즘 등 도시경관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기존 도시가구의 형태 및 특성을 반영
	도심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행사 개최	도심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용하여 문화컨텐츠 산업 유도
		도심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증대
	도심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벤트와 축제 개최
		도시의 상징으로써 도시의 문화기능을 극대화
		빈사무실에 소극장, 문화센터 조성을 장려하는 문화재생 기법 도입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자료) 오덕성 외, '성장관리형 도시재생 적용모델 연구' (2004)

이처럼 문화적 환경이 가지는 효과와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을 위해 문화를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자에 다양한 분류 형태를 보인다. Binns (2005)는 문화주도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서, 문화산업 모델, 문화소비모델, 지역참여모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산업모델의 경우는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관련 산업의 도입을 통해 재생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며, 문화소비모델은 대규모 이벤트의 활용이나 도시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참여모델의 경우는 도시계획에의 물리적인 전개는 어려우나, 커뮤니티 예술 프로그램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박은실(2005)은 문화정책의 개입 정도에 따라 문화주도형 재생, 문화통합형 재생, 문화참여형 재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³⁾ 문화주도형 재생은 문화가 도시 재생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우로써, 일반적으로 쇠퇴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낙후된 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선도개발(Flagship development)의 형태이다. 주로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하거나, 대형 이벤트를 유치하여 도시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문화통합형 재생은 적극적인 도시재생 문화 활동이 환경, 사회, 경제 분야의 활동에 통합되어 진행되는 지역재생 전략으로 초기에는 문화지구, 문화산업 클러스터 등의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나, 21세기에는 문화의 창의성이 도시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도시통합형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문화참여형 재생은 소극적인 도시 재생 문화 활동이 전략계획이나, 기본계획 단계에 문화전략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경우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주체와 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주체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이다. 이 경우, 도시재생 활동에 부가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으나, 원래 계획된 시설이나 서비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처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유형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 가진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전략을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2.2 문화적 자원의 개발유형 및 개발전략

도시의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도시는 그 도시답다'라는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은 여러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역사, 문화, 경관, 산업 등과 같이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고 지역적인 수준에만 영향이 과급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⁴⁾

3) 박은실, 도시 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2005, 문화정책 논총 pp16~18 박은실은 논문에서 Evans의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역사분야에서는 도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 등이 중요한 전래자원이 될 수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세부 분야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 경관분야에서는 산림, 하천 등의 자연경관이나 도시 내의 건축물, 구조물, 도시공원 등과 같은 경관이 주요 대상이 되며, 산업분야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특화되는 산업이 있을 경우 도시정체성 확립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표 3. 도시정체성 확립 분야와 내용

분야	내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의 현장, 유적, 민중화 운동
문화정체성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정체성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해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미지에 따라 개발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긍정적인 문화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이미지를 강화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문화적 환경과 상반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지역일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적 이미지가 강하지 않고, 부정적 이미지도 없는 경우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문화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에 이미 문화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역사도시들이 해당되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산업화과정에서 공해를 유발하고 환경 파괴 이미지가 남아있는 공업도시들이 해당된다.

표 4. 분석의 틀

분석과정	분석내용	분석 측면
배경 및 여건분석	1단계 -도시의 규모, 인구 -도시재생의 배경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 추진의 배경	-
사례도시 도시재생전략의 특성 분석	2단계 -문화적 기반과 활용전략 -역사 문화적 자원의 활용 : 재생전략에 활용된 도시의 문화적 자원과 활용전략	① 강화 -역사 문화적 자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강 : 기존자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보수를 통해 긍정적 기능 강화 ② 개선 -역사 문화적 자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 : 기존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적 기능 도입 (역사적 건축물, 유희지 등) ③ 창출 -새로운 문화적 이미지 창출 : 새로운 문화시설 및 공간 계획
	3단계 -주요 도시재생프로젝트 및 연관성 분석 -핵심프로젝트 및 관련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의 계획특성 -개별 프로젝트들 간의 연관성 분석	① 도시재생전략의 계획특성 -물리적 재생측면에 중점 : 문화시설 도입 및 건축물의 재활용 : 문화적 공간의 조성,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② 연관성 분석 -개별 도시재생전략 사이의 연관성 분석 : 공간적, 성격적 연관관계
도시재생의 효과 분석	4단계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의 효과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의 추진에 따른 효과	-물리 환경적 재생효과, 경제적 재생효과, 삶의 질 개선효과, 도시이미지 개선 효과 등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의 추진에 따른 직접적, 간접적 효과 파악

4) 계기식, 천현숙, '지방화 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1

문화자원 개발을 위한 주요 개발전략으로는 개발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문화자원과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문화공간의 복합화 추구, 지역의 문화 브랜드 창출 등의 전략이 있다. 이러한 개발전략은 문화자원의 개발유형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문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유형에서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자원과 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유형의 경우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킬 문화자원의 발굴과 문화공간의 복합화 전략이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야하는 유형에서는 문화공간의 복합화와 지역문화브랜드 구축의 전략이 핵심전략으로 사용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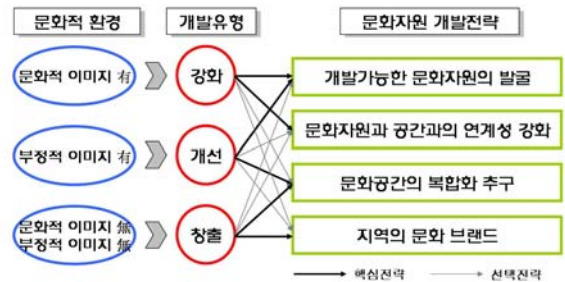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자원의 개발유형 및 전략

이처럼 문화자원의 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개발유형과 개발전략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유형이나 전략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이 가진 문화자원 각각의 이미지에 따라 개발유형과 전략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5)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 활성화 전략'에서 재정리, 삼성경제연구소, 2004.02

3.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의 특성분석을 위해 도시의 역사 문화적 자원과 활용전략, 주요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계획특성과 연관성, 도시재생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사례도시의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

배경 및 여건분석에서는 문화적기반과 그 활용전략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례도시에서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도시의 여건을 파악하고, 도시재생을 위해 어떤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앞서 살펴본 문화자원의 이미지에 따른 개발유형(강화, 개선, 창출)을 바탕으로 문화자원의 개발유형과 개발전략을 분석한다.

사례도시 도시재생전략의 특성분석에서는 사례도시별로 각각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화기반형 도시재생프로젝트의 계획특성과 관련된 기타 프로젝트들의 주요 계획특성을 분석한다. 세부분석에서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개발전략이 도입된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와, 기타 관련프로젝트로 구분하여 도시재생전략의 물리적, 공간적 계획특성과 프로젝트간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한다.

도시재생의 효과분석에서는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의 추진을 통해 나타난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경제적 효과, 환경적 효과, 삶의 질 효과, 공동체 효과, 이미지 효과 측면에서 도시재생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의 종합에서는 사례도시들의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사례도시의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의 성공요인과 국내 적용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표 4)

4. 사례연구 : 스페인 빌바오, 일본 요코하마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 빌바오와 일본 요코하마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례도시는 도시재생전략의 추진을 통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도시의 유무형적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바,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의 관한 사례도시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1 스페인 빌바오

4.1.1 도시재생의 배경

(1)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의 도입배경

사례도시에서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빌바오시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지방의 중심도시로써, 인구 40만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빌바오시는 스페인 제 1의 항구도시로써 레오비온강의 내륙수운의 장점을 살려, 전통적으로 철강, 석재, 조선 등의 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도시

의 기간산업을 이루던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의 몰락과 함께, 1975년에서 1996년 사이 기존 생산직 일자리의 47%가 감소하고, 도시의 실업률이 2.3%에서 26%로 증가하는 등 도시의 경제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도시경제의 몰락과 함께, 기존 도심부 지역이 황폐화됨에 따라, 도시경제의 활성화와 도심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바스크 분리운동의 중심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여 새로운 투자나 관광수입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바스크주 정부에서는 지역의 회생을 위해 지역 내 3개 대도시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상화보완적인 관계정립, 15개 중소도시의 역할 정립, 지역 내 문화적인 특성의 유지 등 문화예술의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지역계획 안에서 빌바오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재생전략을 추진하였다.⁶⁾

(2) 도시재생 전략의 추진기관

빌바오에서는 도심재생을 위한 전략과 비전의 수립을 위한 연구기관 성격의 “빌바오 메트로폴리 30”과 계획수립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Bilbaoria 2000”이라는 민관합동의 도시재생 담당기관을 설립하였다.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은 바스크지역의 130여개의 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단체로 800여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소속되어 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Bilbaoria 2000은 스페인중앙정부와 바스크주정부가 절반씩 투자하여 설립한 개발공사로써 주도하여 Bilbaoria 2000의 주도하에 빌바오시의 재생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표 5. 도시재생의 배경 및 추진체계

빌바오 (스페인)	
인구	- 40만
특성	- 스페인 북부 바스크지방의 중심도시 - 항만과 내륙수운의 장점을 활용한 철강, 석재, 조선 등의 산업이 발달했던 산업도시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도입배경	- 1970년대 후반 도시의 기간산업 쇠퇴로 인한 도시경제 악화 - 바스크 분리 독립 운동의 중심에 위치하여 테러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신규투자, 관광객의 감소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 도시재생의 비전 및 전략수립기관과 실제적인 개발의 추진기관이 분리됨 - 비전 및 전략수립 : 빌바오 메트로폴리 30 - 개발의 추진 : Bilbaoria 2000

4.1.2 도시재생전략의 특성

(1) 문화적 기반과 개발전략

빌바오의 경우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의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도시의 문화자원 개발전략은 주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박은실, ‘스페인 빌바오의 도시재생 전략’

표 6. 빌바오의 문화적 기반(자원)과 개발전략

문화적 기반(자원)		⇒	문화자원 개발유형	문화자원 개발전략
역사 자원	-바스크분리독립 중심지로의 부정적 이미지	⇒	강화	<기존자원의 기능 및 이미지 강화> -수변공간 정비를 통한 시민 휴식공간, 산책로 기능의 강화 -기존 도시가로축과 연계한 보행공간 조성 및 상징물 도입 -빌바오 대학과 Abandoibarra지구를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를 통한 연계 강화 -도시재생의 성공에 따른 지역 문화시설의 활성화 효과
	-역사적 건축물(빌바오 대학, 오래된 와인창고 등)			
문화 자원	-도시 내의 소규모 미술관, 박물관	⇒	개선	<물리적 개선 & 새로운 기능 도입> -문화기반 도시재생을 통한 부정적 도시이미지 개선 -문화예술 중심 및 생활문화 중심 재개발(Abandoibarra지구, Barrakaldo지구)을 통한 도심지 유휴지 물리적 환경 개선 -철로이전부지를 활용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Ametazola지구) -산업유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기능 도입
경관 자원	-레오비온 강변의 수변경관, 기존 도시 가로축	⇒		
산업 자원	-기존의 산업도시 이미지 (철강, 석채산업)	⇒	창출	<새로운 이미지 창출, 신규시설 도입> -대규모 문화시설 (구겐하임 미술관)의 도입과 콘서트 홀 등 관련 문화시설의 집적을 통한 새로운 문화중심 창출 -철강, 석채 등 기존의 도시중심산업의 이미지를 구겐하임 미술관 외부이미지로 재창출 -유명건축가에게 지하철 역사의 설계를 맡김으로써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창출
	-레오비온 강변 유휴지(도크 및 창고 입지)			
	-기존의 철도가 지났던 철로 이전부지 및 역사			
	-발전소 등 산업유산			

세부적인 문화자원 활용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빌바오시의 철강 산업, 석채산업의 중심지였던 산업이미지를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립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미술관의 외관에 상용된 티타늄 및 석채패널부, 진입부의 다리의 교각에 사용된 석재는 이러한 산업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도시 내의 산업이전지나 유휴지 등도 재생의 대상이 되었으며, 도크시설이나 물류창고, 기존의 산업시설이 이전하고 남은 산업이전지 및 유휴지를 중심으로 철거재 개발 수법을 통해 새로운 생활·문화의 중심지로 재생하였다. 대표적으로는 Abandoibarra지구, Ametzola 지구, Barrakaldo지구 등이 재개발 되었다. Abandoibarra지구에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도입하고 콘서트홀, 박물관, 복합쇼핑센터 등을 집적하여 도시의 새로운 문화중심을 조성하였다. Barrakaldo지구는 스포츠 위락중심으로 재개발 되었으며, 산업시대의 발전소 건물이나 물류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시설이나 경관자원으로 활용(Igner Pavilion, Ore loading facility)하는 등 산업자원의 개선을 통한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변경관자원과 강 건너편에 위치한 역사적 건축물, 도시의 오래된 가로축은 보행로 정비와 보행자전용 다리의 건설, 가로축과 연계된 상징조형물 도입 등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빌바오 구겐하임의 도입과 함께 도시 내의 기존 문화시설은 긍정적인 과점효과를 얻어 개선되고 있으며, 지하철역사의 설계를 유명건축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지하철역이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표 6 참조)

(2) 주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① 핵심 프로젝트 : Abandoibarra 지구 수변재개발

빌바오시의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의 핵심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도입과 미술관이 위치한 Abandoibarra지구의 수변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Abandoibarra 지구는 기존의 내륙수운을 활용한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되던 지역으로써 빌바오시는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 지구를 대상으로 문화기반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

였다.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겐하임재단의 미술관을 지구 내에 유치하였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의 스타성과 함께 독특한 외관으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의 남측에 컨벤션기능과 복합된 대규모 콘서트홀을 도입하고 있으며, 미술관 인근에 놀이터와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접근을 유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지역 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기능의 일부이전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의 남측은 기존의 Doña Casilda공원을 확장하여 공원녹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레오비온 강변은 도시민들의 산책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또한 지구의 중심부에 넓은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전체 지구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랜드마크 효과를 위한 계획도 나타나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도시에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입지하여, 지구의 관문 역할과 함께 도시전체의 랜드마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체 지구의 중심에는 광장과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레오비온강 양안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신설하고 (역사적 건축물인 빌바오 대학, 전통적인 공간구조를 간직한 주거지역과 연결), 빌바오 도심과 지구를 연결하는 전철을 신설하고 주변 지하철역사의 정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도심의 기존가로체계를 반영하여 중심가로축을 설정하는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 (표 6 참조)

② 관련 프로젝트 : Ametzola, Barrakaldo Area

관련 프로젝트들은 빌바오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기관인 Bilbaoria2000에 의해 진행된 재개발사업으로 빌바오 시내의 유휴지를 대상으로 주거, 업무, 상업, 위락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Ametzola 지구의 경우 기존 산업물류를 운반하던 철도역사와 노선 부지를 재개발하여 공원을 포함한 고급 주

표 7. 핵심프로젝트 : Abandoibarra지구 수변재개발의 주요계획내용

<p><문화기능 도입></p>  <p>① 구겐하임 미술관 ② 콘서트홀 ③ 도서관 ④ 어린이놀이터</p>	<p>대규모 문화시설 도입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함으로써 아반도이바라 지구 및 도시의 문화적 상징으로써 도시이미지 개선 -지구 남쪽부지를 대상으로 컨벤션기능과 복합한 콘서트홀 도입</p> 	<p>중소규모 문화시설 -Deusto 도서관 계획 : 지역 대학의 기능을 일부 이전함과 동시에 도서관의 건립을 계획 중 -미술관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임</p> 	
<p><공원녹지의 확충></p>  <p>① Doña Casilda 공원의 확장 ② Bank Park (위더프론트 정비) ③ Campa de los Ingleses</p>	<p>기존공원과 연계된 확장 -지구 남쪽에 위치한 Doña Casilda 공원과 인접한 부지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확충</p> 	<p>수변공간 정비 -레오비온 강변을 대상으로 Bank Park의 조성 및 산책로 정비</p> 	<p>지구내 공원녹지 확충 -지구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녹지를 조성 (새로 확충될 오피스 종사자 이용과 쾌적성 확보를 목표로 함)</p> 
<p><상징성 강화></p>  <p>①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관재료 ② 랜드마크 타워 (오피스 기능) ③ 광장도입</p>	<p>관문이미지 및 지역산업 이미지 반영 -구겐하임미술관의 랜드마크화 -구겐하임 미술관의 구성 재료로, 철강, 석재로 유명했던 지역산업 이미지 반영</p> 	<p>랜드마크 타워 도입 -지구 내에 업무 및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업무기능을 위주로 하는 랜드마크 타워의 건설을 계획 중임</p> 	<p>상징광장 조성 -아반도이바라 지구와 기존 도시를 연결하는 결절점에 상징광장 조성 (랜드마크타워 및 오피스 블록과 연계)</p> 
<p><보행환경 정비 및 강화></p>  <p>① 수변산책로 정비 및 보행브리지 연결 ② 지구내 노면전차노선 ③ 기존도시가로축을 반영한 가로조성</p>	<p>수변공간 정비 및 보행브리지 연결 -레오비온강변 보행로를 정비하고 보행브리지를 연결함 -기존도시가로축과 연결하여 보행브리지를 건설하되, 역사적 건축물인 빌바오대학과 연결되도록 함</p> 	<p>기존도시가로축을 반영한 가로조성 및 대중교통 연계 -Abandoibarra Av. 등 기존도시가로축을 연계하여 가로를 조성(자동차도로+보행로) -노면전차를 통한 연계를 통해 집근성 강화</p> 	

표 8. 관련프로젝트 : Ametzola, Barrakaldo

<p>Ametzola 재개발</p>	
 <p>① 기존 스포츠시설 ② 지하철 역사 ③ 공원</p>	<p>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존 산업물류 중심의 철도시설 유흥지를 고급주거지역으로 재생 : 750주호의 고급 주택과 150주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함 -철도노선 상부는 복개하여 보행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하부는 거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 -지하철 역사는 새롭게 디자인하여 활용</p>  <p><새롭게 조성된 주거동></p>  <p><Ametzola Station></p>
<p>Barrakaldo 재개발</p>	
 <p>① 스포츠 및 레저시설 ② 산업유산 활용 ③ 보행자거리 조성 ④ 광장조성 ⑤ 공원조성 및 수변정비</p>	<p>스포츠, 위락 중심의 재개발 -조선소 및 산업시설 유흥지를 대상으로 스포츠 위락중심의 재개발 시행 -경기장, 스포츠·레저 콤플렉스 도입 및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함 -기존도심과 연계되는 보행자거리를 조성하고 광장을 조성하여 기존도심과의 연계성 증가</p>  <p>산업유산의 재활용 -지구내 산업유산을 활용하여 문화 및 경관자원으로 활용함 : 발전소를 전시 및 공연시설로 재활용 (Ilgner Building) : 항만 물류시설을 경관자원으로 재활용 (Ore loading facility)</p> 

거단지를 개발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750호의 고급 주거와 15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며, 기존 철도 노선부지의 하부는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도노선부지의 상부는 보행로와 녹지공간으로 재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철도역사는 도시 주변과 연계하는 지하철역사로 새롭게 디자인 되었다.

Barrakaldo 지구는 레오비온강변의 도크와 그 주변의 유휴지를 대상으로 스포츠, 위락 중심의 재개발을 시행하였다. 축구경기장과 대규모 스포츠시설, 복합레저 콤플렉스를 개발하여 스포츠위락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여 쾌적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레오비온 강의 수변지역 역시 산책로와 보행자공간으로 재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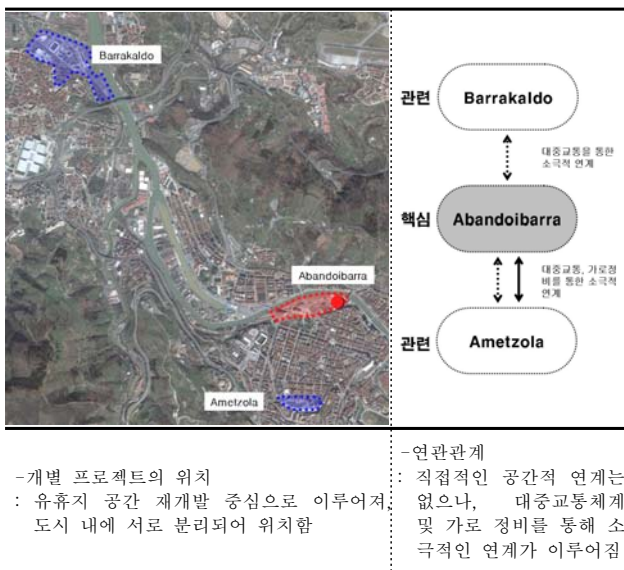
특히 Barrakaldo지구에서는 과거의 산업유산을 활용한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발전소는 전시 및 공연시설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항만 물류시설은 경관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도심과의 연계성을 위해 새로운 보행자가로를 신설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 (표 8 참조)

이외에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철도교통수단의 정비(Varianta Sur rail)가 이루어져 유명건축가에 의해 도시의 지하철 및 전철 역사들이 설계되어 새로운 도시의 명소로 개발되고 있으며, 유명 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을 도시 곳곳에 배치하는 등 도시의 문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도시재생 프로젝트간의 연관성 분석

빌바오시의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들은 Bilbaoria 2000이라는 하나의 추진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빌바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진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들이 각기 다른 부지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업, 업무, 주거 등 도시기능의 확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빌바오 : 개별프로젝트간 연관관계



반면, 빌바오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시발점이자 핵심 프로젝트인 Abandoibarra 지구 개발과 기타 관련 프로젝트들간의 직접적인 공간적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개별 프로젝트들은 주거환경의 질 개선, 스포츠·위락 중심 재개발 등의 서로 다른 개발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하철 노선을 신설하거나 새롭게 정비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도시적인 차원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Ametzola 지구의 경우 Abandoibarra와 비교적 인접하여 기존 도시가로정비를 통해 소극적인 연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3) 도시재생의 효과

빌바오시는 Abandoibarra지구의 개발과 구겐하임 미술관의 도입과 같은 도시재생전략의 성공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얻고 있다. 먼저 가장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연간 1백 4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들을 통한 직접적인 관광수입만 연간 1억 4천 6백만 유로에 이른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3600명의 직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2천 8백 1십만 유로의 지역 재정 증가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구겐하임 미술관의 성공과 함께 빌바오시는 통합된 대규모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현대적인 도시로의 도시 리모델링에 성공하였으며, 도시를 등졌던 지식계층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한때 바스크 분리 독립운동으로 인한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빌바오시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4.2 요코하마, 일본

4.2.1 도시재생의 배경

(1)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의 도입배경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른바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많은 도시들에서 창조도시나 문화 정책과 계획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7) 요코하마 역시 버블붕괴 이후 기업체들이 대거 수도 도쿄로 회귀함에 따라, 취업자 수의 감소, 인구유출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이에 요코하마시에서는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 3월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화검토 위원회’를 설립하고 2004년 1월 ‘문화예술 창조도시 - Creativity Yokohama 형성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문화예술과 관광을 키워드로 요코하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7) The Role of Culture in Urban Regeneration, Masayuki Sasaki, Forum Barcelona 2004

(2) 도시재생 전략의 추진기관

요코하마시에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 Creativity Yokohama’ 형성을 위한 제언의 실천을 위하여 2004년 4월부터 시장 산하 조직으로 ‘문화예술도시창조사업본부’를 만들어, 문화예술에 의한 도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National art Park Project가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2003년부터 ‘National art Park 구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2009년을 목표 연도로 연차적인 추진사업들이 정리되었고, ‘Creative City Core’ 형성사업에 대한 구상도 진행되었다. Creative City Core 구상에서는 시민과 Art NPO가 중심이 되어 도심 속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련 실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10. 도시재생의 배경 및 추진체계

요코하마 (일본)	
인구	- 350만
특성	- 일본 가나자와현의 현청소재지 - 도쿄에 인접하고 있는 일본 제 1의 항구도시이자 최초의 개항도시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도입배경	-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도시 내 기업의 유출 및 인구 유출의 심화 : 버블붕괴 이후 인접한 도쿄로 기업과 취업자가 유출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 전체 계획 구상 : ‘문화예술·관광 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화검토위원회’ - 전체 계획의 추진기관 : 시장 산하 ‘문화예술도시창조사업본부’ - 개별 사업의 추진 : 현재 National art Park Project 구상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구상중임 : Creative City Core의 일부사업의 경우 시민 및 문화예술관련 NPO가 사업에 참여

4.2.2 도시재생전략의 특성

(1) 문화적 기반과 개발전략

요코하마에서는 시가 가지는 개항도시로서의 이미지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도시 만들기가 도시 활성화의 중심 목표이며, 도시가 가지는 다양한 문화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문화자원 활용의 중심은 부

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요코하마시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역이미지 강화와 지역 내 문화시설간의 연계강화, 문화예술관련 인력의 활동영역 확보, 도시 임해부 공간 정비 등의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개항시대의 근대건축문화재나 창고, 철로이전부지 등 산업유산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적극 재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의 개선보다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문화예술을 위한 새로운 활동거점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문화자원 개발전략이 아직 구상·계획 단계에 있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가 가지는 긍정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기조를 보이는데 의미가 있다. (표 11 참조)

(2) 주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① 핵심 프로젝트 : National Art Park Project

요코하마시는 도심임해부를 지금 보다 더 시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National Art Park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National Art Park Project는 개항도시로서의 역사 및 문화 등의 자원을 살리면서,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창조성을 살린 새로운 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요코하마 포트사이드측, 미나토미라이21 중심지구 킹측, 미나토미라이21 중심지구 쿤측, 신코·비사마치(新港·馬車道)측, 오사바시·니혼오도리(大さん橋·日本大通り)측, 야마시타·차이나타운·모토마치(山下·中華街·元町)측 등 6개 중심축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별로 테마를 부여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중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大さん橋·日本大通り측의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지구 중심에 위치한 象の鼻·大さん橋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象の鼻방과제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기능을 집적하고, 지역 전체를 문화발신거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항을 상징하는 역사적 자원이나 수변을

표 11. 요코하마의 문화적 기반(자원)과 개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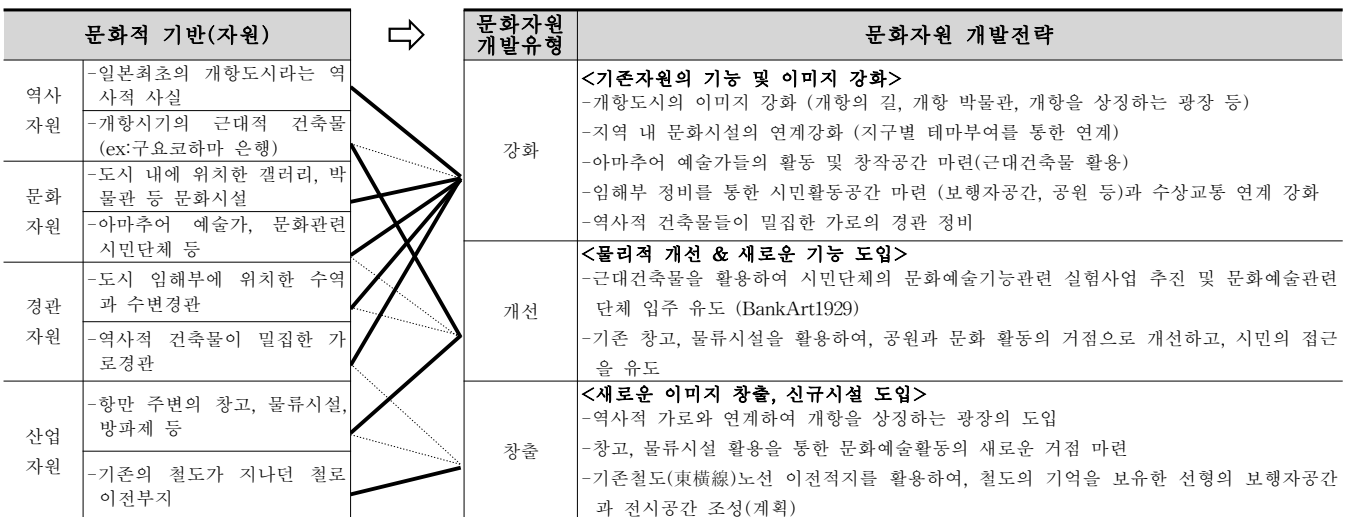


표 12. 핵심프로젝트 : 요코하마 National Art Park Project의 주요내용

	<p>National Art Park Project 지구별 주요 정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코하마 포트사이드측 : 예술과 디자인의 거리 정비, 기존시설 활용 -미나토미라이21 중심지구 권측 : 엔터테인먼트 거점 개발 (관련기업 유치추진) -미나토미라이21 중심지구 권측 : 기존 문화시설군(MM21내의 문화시설)의 연계와 페브릭아트, 거리예술가의 활동 활성화 -新港・馬車道측 : 시민단체의 활동 강화,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문화기능 도입 -大さん橋・日本大通り측 : 요코하마의 상징공간으로 정비 -山下・中華街・元町측 : 기존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살려 국제관광거점으로 정비, 창고시설을 활용한 창조산업의 집적 유도 	
<p><大さん橋・日本大通り측 : 象の鼻・大さん橋 지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역사적 건조물의 활용 : 象の鼻 방과제 : 빨간 벽돌창고 아카레가 ② 국제적 문화 활동 무대 조성 ③ 개항기념회관 ④ 개항을 기념하는 광장 ⑤ 수상교통터미널의 형성 ⑥ 역사적 가로 정비 	<p>역사적 건조물의 복원 및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象の鼻 방과제 : 방과제를 복원하여 역사적인 수변공간 이미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카레가 : 새로운 항구가 생기면서 기능을 잃은 붉은 벽돌조의 창고를 쇼핑몰과 아트숍으로 활용
<p>트리엔날레 개최시의 도시환경(2005)</p> <p>단계적으로 전용된 시설의 형성 이미지</p>	<p><山下・中華街・元町측 : 山下ふ頭지구></p> <p>트리엔날레 개최 및 창고시설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개최시 사용되었던 창고를 중심으로 단계적 기능 전환 추진 : 기존 메인회관과 지구 서측에 위치한 창고를 시작으로 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수변공간의 보행로 정비 	

표 13. 관련프로젝트 : Creative City Core, 네트워크

<p>Creative City Cor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 제일은행 요코하마지점 ② 구 후지은행 요코하마지점 ③ 선박회사 창고 ④ 민간창고 	<p>BankArt1929의 계승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제일은행 요코하마지점 : 영상페스티벌의 프로모션과 민간예술단체의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후지은행 요코하마지점 : 동경예술대학대학원 영상연구과 유치와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회사의 창고 : 예술가와 시민이 교류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한시적으로 지구내 역사적 건조물을 오피스로 활용 -민간기업의 창고를 활용하여 창조적기업의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입지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p><오피스로 활용되는 근대건축물></p>
<p>Network</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 東横선 폐선적지 녹도 ② 구 東横선 폐선적지 프로미나드 ③ 개항의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東横선 폐선적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조성 : 요코하마역 서측 지하화부분은 녹도로 활용 : 요코하마역에서 사쿠라기초역까지의 구간은 고가철도 구간으로 철도하부를 활용 선형의 예술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녹도를 조성하여 아트워크를 조성 <p><구 東横선 폐선적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공간을 따라 개항을 상징하는 '개항의 길'을 보행자전용도로로 조성 		

활용하여 관광교류거점을 형성하고 수변공간과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문화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항상 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대시대의 창고(아카덴가)나 방과제 등 역사적인 건조물을 복원·활용하여 역사적인 수변공간을 복원하고, 세계수준의 문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대공간을 마련하고, 개항을 기념하는 광장의 조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가로의 정비, 수상교통 터미널의 형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山下·中華街·元町축의 山下ふ頭지구에서는 기존의 물류기능이 밀집한 곳으로 단계적으로 다양한 용도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지구의 서측을 대상으로 요코하마 국제 트리에날레가 2회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창고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서 영상산업을 위한 스튜디오 등의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트리에날레 회장으로 활용되었던 창고를 시작으로 서측의 창고를 먼저 용도전환하고 이후 확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2 참조)

② 관련 프로젝트 : Creative City Core, Network

Creative City Core는 비사마치지구, 니혼오도리 지구, 사쿠라기초 노게지구 등 3군데의 모델을 설정하고, 지구 내의 창조산업 및 문화산업 관련 기능을 활용하여 밀도 높고 창조적인 예술문화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시민예술단체의 활동과 근대건축물의 문화적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BankArt1929 프로젝트이다. BankArt1929는 요코하마 비사마치지구 내에 위치한 '구 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과 '구 후지은행 요코하마 지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련 시민 및 민간단체가 2004년부터 2년 동안 구체적 시설운영의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구 제일은행은 영상페스티벌 '창조도시'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예술관련 민간단체와 예술가들의 활동기반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구 후지은행의 경우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과'를 유치하고 이들의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선박화사의 창고나 민간기업의 창고를 활용하여 BankArt1929실험의 발전적인 계승과 문화기반의 창조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실험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변의 근대건축물로 계획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외에도 니혼오도리지구의 구 관동재무국 건물, 사쿠라기초 노게지구의 구 노송회관건물 등 다양한 근대건축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지구 내에 위치한 문화관련 시설과의 연계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관련프로젝트로 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National Art Park Project와 Creative City Core의 대상지인 요코하마 도시 임해부의 보행, 자동차, 전철 등을 통해 연계하는 프로젝트이다. 세부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임해부 수변을 연결하는 보행중심의 개항의 길을 조성, 東横선의 폐선부지를 활용한 아트워크 조성, 수상네트워크 연결 등이 있다. 이중 아트워크의 조성은 요코하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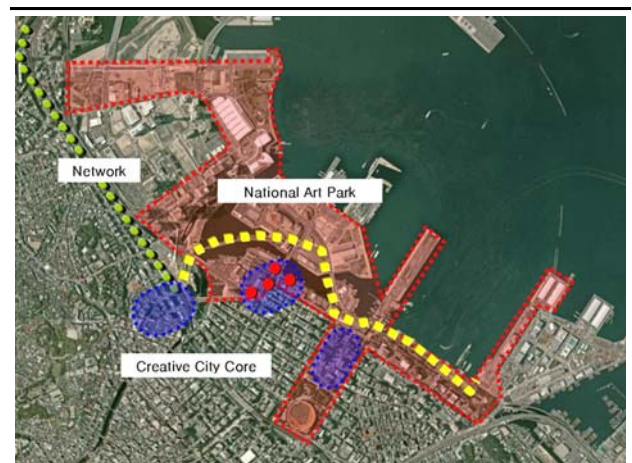
과 사쿠라기초역 사이의 부지가 고가철도인 점을 활용하여 철도하부에 선형의 전시관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철도의 기억을 간직한 보행자전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표 13 참조)

③ 도시재생 프로젝트간의 연관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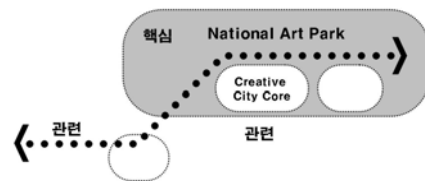
요코하마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Creative City YOKOHAMA'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 임해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창조도시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세부과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프로젝트간의 공간적인 연관관계는 빌바오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요코하마 : 개별프로젝트 간 연관관계



- 개별 프로젝트의 위치
- : 요코하마 임해부를 중심으로 National Art Park와 Creative City Core가 분포되어 있음
- : Network 계획은 상기 두 프로젝트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위치에 입지



- 연관관계
- : 공간적인 범위가 중첩되고 관련프로젝트로써 Network 전략을 도입하여 상호연계를 강화시킴
- : 물리적 재생과 예술 문화 활동의 활성화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의 대상지는 대부분 요코하마 도시임해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Creative City Core 모델 지구가 핵심프로젝트인 National Art Park Project 구역 내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Creative City Core 계획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건축물의 문화적인 활용의 대상 역시 도시임해부에 입지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경우 역시 핵심프로젝트지역과 다른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東横선 폐선부지를 대상으로 한 계획과 대

상지내의 보행네트워크 계획으로 이루어져, 도시재생의 대상지인 요코하마 임해부를 주변지역과 연계시키고, 시민의 접근을 유도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처럼 개별 프로젝트간의 공간적인 연관관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재생을 위한 접근방법에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National Art Park Project가 예술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임해부의 물리적 정비에 중점을 둔 반면, Creative City Core는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예술 문화 활동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도시재생의 효과

요코하마시의 도시재생전략인 Creative City YOKOHAMA는 2003년부터 계획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정확한 도시재생의 효과는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을 통해 볼 때 물리 환경적 측면의 정비와 문화적인 활동의 활성화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효과가 기대되며, 영상산업 등 문화기반형 창조산업관련 단체 및 기업의 유치 계획이 진행 중인 바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계획 이전에 BankArt1929와 같은 실험사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시민과 관련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Creative City Core 계획에는 이를 계승하는 후속계획이 포함되고 있는 바, 공동체 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분석의 종합

지금까지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이 추진된 빌바오시와 요코하마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배경과 추진체계, 도시의 문화적 기반과 활용전략, 주요 도시재생전략의 계획내용과 개별 프로젝트간의 연관성, 도시재생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도시재생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체계를 살펴본 결과, 두 도시 모두 경제적 침체와 물리적 쇠퇴로 인해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게 된 점에서는 유사하나 추진체계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도시 모두 전략의 수립과 실제 개발의 추진기관을 따로 설치하여 이들에 의해 전체 도시재생전략이 추진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개별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빌바오시는 전체추진기관이 개별프로젝트까지 관리하고 있으나, 요코하마 시에서는 일부 프로젝트를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문화적기반과 활용전략에서는 버려진 산업유산이나 도시자체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빌바오시는 기존 문화적 기반의 개선과 새로운 문화기반 창출에 중점을 둔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요코하마시의 경우는 기존의 양호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사례분석의 종합 : 단계별 분석 측면 및 내용

		빌바오	요코하마
1단계	배경	-구산업 쇠퇴로 인한 도시경제의 침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쇠퇴	-버블붕괴로 인한 기업이탈 등 도시경제의 침체
	추진체계	-전략수립기관과 개발 추진기관의 분리 -개별프로젝트까지 관련된 추진체계 유지 	-위원회를 통한 전략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추진기관 구성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시민중심의 추진과 운영 
2단계	문화기반	-긍정적 문화자원이 적고, 버려진 산업유산이나 유휴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함	-도시 임해부의 우수한 경관을 비롯하여, 개항 이후의 근대 건축물 등 긍정적인 이미지의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
	활용전략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 및 새로운 문화적 창출 위주로 진행됨	-긍정적 이미지의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3단계	계획특성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계획내용 : 근대건축물 및 산업유산의 적응적 재이용 : 경관자원의 활용 :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 보행자 중심의 계획 추진 -주거지개발, 업무 및 상업기능 블록 개발	-주거, 상업, 업무 기능관련 개발계획은 없음
	프로젝트간 연관성	핵심프로젝트 -Abandoibarra 관련 프로젝트 -Ametzola -Barakaldo	핵심프로젝트 -National Art Park 관련프로젝트 -Creative City Core -Network
4단계	효과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입증됨 -유휴지의 재개발 위주로 추진되어 물리적 재생 효과와 함께 삶의 질 개선 효과 -도시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짐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남	-현재 전략이 진행 중으로 정확한 가시적 효과는 파악하기 어려움 : 일부 실험사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계승하는 계획이 수립된 점을 볼 때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 도시재생프로젝트들의 세부계획내용과 각 프로젝트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세부계획 내용 측면에서는 근대건축물 및 산업유산의 적응적 재이용, 새로운 문화시설의 도입, 보행자 중심의 계획추진,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빌바오 시에서는 도시기능의 강화를 위해 주거지개발, 업무 블럭의 개발, 쇼핑센터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요코하마시의 경우는 주거, 업무, 상업기능 유치를 위한 물리적인 개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빌바오시가 도심 내 유흥지 재개발로 진행된 반면, 요코하마시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도시환경을 가진 도심 임해부를 대상으로 정비와 문화 예술 활동의 강화를 위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프로젝트간의 연관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다른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개별프로젝트간의 공간적 연관성이 없는 빌바오에 비해, 요코하마에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도심 임해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강한 공간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성격 면에서도 각각 물리적인 재생과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개별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의 효과 측면에서는 빌바오시의 경우 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물리적인 도시환경의 개선 효과와 함께, 도시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한 시민의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코하마시의 경우는 2009년을 목표로 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도시재생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부분적으로 BankArt1929와 같은 실험사업이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계획의 추진 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빌바오와 요코하마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의 도입배경, 추진체계와 계획특성 및 효과를 분석하여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의 국내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적 자원의 가치와 유형에 따른 개발전략을 살펴보았으며, 문화적 자원의 이미지에 따라 강화, 개선, 창출의 접근방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시별로 배경 및 여건분석, 도시의 역사문화적 자원과 그 활용전략,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의 계획특성과 프로젝트간의 연관관계, 도시재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을 도입 시 국내 도시들이 보유한 문화적 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문화적 자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시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발굴되어진 문화적 자원에 따라 활용방식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시설의 도입과 녹지공간의 확보,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을 활용한 계획, 근대적 건축물과 산업유산의 적응적 재이용 및 보행자 중심의 계획추진 등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계획특성은 국내 도시재생에서도 적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의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전략의 추진 시 물리환경의 개선 효과 및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긍심 고취, 도시이미지의 개선 등 간접적인 사회적 효과도 나타남을 인지하고,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사례로 빌바오와 요코하마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요코하마시의 경우 주요계획이 아직 추진단계에 있어 정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다만 지속가능한 개발차원에서 도시재생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고, 특히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전략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Ronan Paddison and Steven Miles,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ROUTLEDGE, 2007
2. Chris Couch, Charles Fraser and Susan Percy, Urban Regeneration in Europe, Blackwell, 2003
3. Masayuki Sasaki, The Role of Culture in Urban Regeneration, Forum Barcelona 2004
4. ナショナル아트파크構想 提案書, ナショナル아트파크構想推進委員會
5. 小澤一郎 외, 地方都市再生の戦略, 早稲田大學出版部, 2001
6. 라도삼, 문화 환경과 지역가치, 서울경제, 2006.08
7. 박은실,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 17집, 2005
8. 오민근, 문화에 의한 도시 활성화 방안, 문화정책논총 제 17집, 2005
9. 오덕성 외, 성장관리형 도시재생적용모델 연구, 한국과학재단, 2004. 10
10. 오덕성 외,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국토계획', 제39권 제5호, 2004.10
11. 삼성경제연구소,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 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12. 오덕성 외, 성장관리형 도심재생의 기본전략 및 계획요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국토계획', 제38권 제3호, 2003.06
13. 계기석, 천현숙,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1
14. <http://www.bilbaoria2000.com>
15. <http://www.city.yokohama.jp>